

**도입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양 나의 죄를 정케 하사 How I praise Thee, precious Savior**

1.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2.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 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3. 죄의 짐을 풀어 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4.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1. How I praise Thee, precious Savior, That Thy love laid hold of me:  
Thou hast saved and cleansed and filled me That I might Thy channel be.  
2. Emptied that Thou shouldst fill me, A clean vessel in Thy hand,  
With no power but as Thou givest Graciously with each command.  
3. Witnessing Thy power to save me, Setting free from self and sin;  
Thou who boughtest to possess me, In Thy fullness, Lord come in.  
4. Jesus, fill now with Thy Spirit Hearts that full surrender know,  
That the streams of living water From our inner man may flow.  
  
Channels only, blessed Master, But with all Thy wondrous power  
Flowing through us, Thou canst use us Every day and every hour. Amen.

**본문 이사야 6:6-8**

6 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Isaiah 6:6-8**

6 Then one of the seraphim flew to me, having in his hand a burning coal that he had taken with tongs from the altar. 7 And he touched my mouth and said: "Behold, this has touched your lips; your guilt is taken away, and your sin atoned for." 8 And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Then I said, "Here I am! Send me."

**설교**

이사야 6장은 나라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시작됩니다. 오랜 기간 유다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던 웃시아 왕이 죽고, 나라는 정치적·영적 혼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안정한 때에 이사야는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땅의 왕좌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소명의 기초가 됩니다. 이사야는 "높이 들리신" 주님을 보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사 6:1-4) 이사야는 사명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 앞에서 서게 됩니다. 참된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배가 사명보다 먼저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헌신보다 앞섭니다.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이사야는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사 6:5).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절망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다. 한 스랍이 재단에서 핀 숯을 가져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선언합니다.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 6:6-7)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기 전에 그를 먼저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에 이사야는 주저함 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그의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질 것이며, 오랜 기간 열매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사 6:9-13). 그럼에도 이사야는 순종합니다. 그의 순종은 사명의 난이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겉으로 보이는 결과보다 신실함이 더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이사야의 사역은 즉각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계속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은 사람보다 마음을 내어드린 사람을 찾으십니다. 소명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된 위에 세워집니다. 결국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 경이한 정결함, 그리고 받은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그분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고, 그분의 목적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눈에 보이지 않는 길에서도 신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참된 부르심은 예배에서 시작되고, 은혜 속에서 깊어지며, 겸손하고 꾸준한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도 이사야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설교

Isaiah 6 begins in a time when the nation was in crisis. King Uzziah, who had long governed Judah with stability, had died, and the nation was now in political and spiritual turmoil. Yet in this moment of instability, Isaiah is given a heavenly vision. God shows him that while earthly thrones may shake, the throne of God never does. This becomes the foundation of Isaiah's calling. Isaiah sees the Lord "high and lifted up," with the train of His robe filling the temple, and the seraphim crying out, "Holy, holy, holy is the Lord of hosts;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Isa 6:1-4). Before receiving any mission, Isaiah stands first before the holiness and majesty of God. True calling does not begin with our ability, but with seeing who God is. Worship comes before mission, and seeing God precedes offering ourselves to Him. In that holy light, Isaiah immediately recognizes his own sin (Isa 6:5). But God does not leave him in despair. A seraph takes a burning coal from the altar, touches Isaiah's lips, and declares, "Your guilt is taken away and your sin atoned for"(Isa 6:6-7). God purifies Isaiah before sending him. We serve not because we are qualified, but because God cleanses us by His grace. Then God asks,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and Isaiah answers without hesitation, "Here am I; send me" (Isa 6:8). His mission would not be easy. The people would not listen; their hearts would grow dull; and the fruit of his ministry would not appear for a long time (Isa 6:9-13). Yet Isaiah obeyed. His obedience was not grounded in how difficult the task would be, but in who the God was who called him. This passage also teaches us that faithfulness matters more than visible results. Isaiah's ministry did not produce immediate change, yet he continued because of God's glory and God's calling. God seeks not those with the greatest ability, but those who will surrender their hearts. Calling is built not on our skills but on our willingness to be devoted to Him. Ultimately, the glory Isaiah saw, the cleansing he received, and the mission he accepted reveal a pattern for us today. We too must behold God's holiness, be cleansed by His grace, offer ourselves to His purposes, and walk faithfully even when the path ahead is unclear. True calling begins in worship, deepens through grace, and is lived out through humble, steady obedience. May we also confess with Isaiah in this generation: "Lord, here I am. Send me."

나눔 질문

1. 이사야는 혼란스러운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려움이나 불안 속에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Isaiah saw God's holiness in the midst of a confusing time. In what ways is our family looking to God when we are in difficulty or uncertainty?
2. 이사야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달았던 것처럼,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느끼나요?  
Just as Isaiah recognized his sin in the light of God's presence, what areas do I feel I need to reflect upon before God today?
3.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누가 나를 위해 갈까?"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각자는 어떤 작은 순종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If God were to ask us today,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what small act of obedience could each of us put into practice?

마침기도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속에서 오직 하나님 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in this chaotic and confusing world, we believe that You alone can cleanse us from our sin. Wash us clean from all unrighteousness, and when You call us, grant us the faith and resolve to declare, like Isaiah, 'Lord, here I am, send me.' We pray this in Jesus' name. Amen.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기도제목

1.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의 상황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의 높이 들리신 거룩함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Grant us the vision to behold God's unshakable throne and His high and lifted up holiness and glory amidst a world full of confusion and uncertainty.
2.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아봐야 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소서.  
Just as Isaiah confessed his sin in the light of God's holiness, help us today to recognize the sin we need to reflect upon before You, and pour out Your grace to cleanse us.
3. "누가 나를 위해 갈까?"라는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저 없이 응답했던 이사야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된 마음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Like Isaiah, who responded without hesitation to the call,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with "Here I am! Send me," may we also respond to Your call with a devoted heart.